

건축문화사랑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21.6.139호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라북도건축사회



발행인 : 정인채, 한형민, 박진만
창간일 : 2009년 11월 10일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T. 062.521.0025 F. 062.528.0026

02

시론

건조물(사찰·서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후 건축사의 역할에 대하여

03

종합

사랑에서 _ 다락, 로망과 위법의 경계를 넘나들다...

건축사 Q&A

건축사 만평

04-05

전북 지역 뉴스

전라북도, 총괄·공공건축가제도 추진사항 논의 위해 정기회의 개최
전라북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국비 229억 원 확보
군산대학교 해상풍력연구원 국제공모 시상식 열려

06-07

광주 지역 뉴스

광주건축사회, 광주지체장애인협회에 300만 원 기부
2021년도 광주건축사회장배 골프대회 시상식 개최
광주건축사회, 광주시 함인선 총괄건축가 초청 강연회 개최

08-09

전남 지역 뉴스

전남건축사회, 회원 복지 증진 위한 리조트 이용 협약 체결
전남건축사회, 교육위원회의 개최하고 올해 건축사 실무교육 일정 변경
전라남도, 2021년도 업무대행건축사 공개모집

10

설계경기

장흥군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건립(신축) 사업 건축 설계공모

11

종합뉴스

대한건축사협회, 2021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430명 발표
국토부, '21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 건축물 841건 선정
'2021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오는 6월 22일까지 접수

12

독자광장

책 소개 _ 건축, 음악처럼 듣고 미술처럼 보다

세상사는 느낌 _ 일상의 여유

한 장의 사진 _ 그녀가 계단을 연주할 때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 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를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
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컬러
PDF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건조물(사찰·서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후 건축사의 역할에 대하여



정종민 논설위원
 명인 건축사사무소 대표(전남 순천)
 myarc3500@hanmail.net
 • 1997 개업 - 현재
 • 국립 순천대 석사, 박사수로
 • 창원 경남대학교,
 순천 청암대학교 겸임교수, 출강

2019년에 산사 7곳과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지금까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이 사찰을 포함하여 13종류(2019. 6. 현재)이다. 우리나라 산사 일부와 서원 일부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은 우리 문화유산의 쾌거다. 당초에 산사는 7곳 중 4곳만 등재를 권고 받았다. 당시 상황으로 4곳 사찰이 등재 권고를 받은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한국의 전통 사찰 전체를 대표한다는 의미로 7개 사찰을 묶어 연속유산으로 신청했는데, 일부가 빠진다면 취지가 약화되기 때문이다. 참으로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는 후문이다.

문화재청과 조계종 그리고 외교부의 노력으로 아이코모스(ICOMOS)가 지적한 12가지의 문제에 대해 차분하게 조목조목 해명하고 자료를 제출하여 막판 뒤집기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해인사 장경판전과 불국사와 석굴암은 1995년에 등재 됐다. 또 서원도 2016년 등재 신청을 했을 때 등재되리라 자신감을 가졌으나, 반려 받은 아픈 기억이 있다. 따라서 이번 두 종류가 연이어 등재되었다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다. 정부와 관련 단체에 큰 박수를 보낸 것은 물론, 앞으로 다방면의 문화재에 대하여 더욱 철저한 관리가 요망된다.

불교는 원래 인도에서 발생하여 중국을 통해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들어왔다. 인도에서 바닷길로 직접 들어온 경우도 있었다. 고구려는 소수림왕 때, 백제는 침류왕 때 중국에서 들어왔으며, 신라는 고구려 목호자가 놀지왕 때 전했으며, 한참 뒤인 법흥왕 때 공인되었다. 일본은 백제 성왕 때 겸익과 노리사치계가 불상과 불경을 전파했다. 그런데 불교가 발생한 인도에서는 힌두교의 영향으로 인도 북부를 제외하고 꽃을 피우지 못하고 대승불교란 이름으로 중국에 전파 된 후 성행했다. 이런 현상에 위기를 느낀 중국 지식인들은 송나라 때 주자를 중심으로 중국의 주체성을 찾고자 주자가 「주자전서」로 성리학의 계보를 만든 뒤 오히려 유·불·도를 통섭하여 성리학을 집대성했다. 중국은 그 후로 700여 년 동안 「주자전서」가 사상의 주류를 이루었고,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보편적 정신문화로 받아들여졌다. 물론 불교 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주류가 성리학의 이념이 지배하는 사회로 변해갔다.

서원의 시작은 송나라 때 주자가 성리학을 「주자전서」로 정리한 사상과 철학을 바탕으로 시작됐다. 이것을 조선 개국 때 신진사대부들이 정치이념으로 받아 드렸다. 서원 형태의 기원은 중국 당나라 궁중의 편수처인 집현전에서 시작하여 민간으로 퍼지면서 서원이란 말이 생겼다. 초기 4대 서원은 수양, 석고, 악록, 백록서원이었다. 우리나라 성리학의 시작은 고려 때 안향이 원나라에서 성리학 이론서를 처음 소개하면서 시작됐다. 조선시대 서원은 풍기군수 주세붕이 안향을 백운동서원에 배향하며 시작되었다. 백운동서원은 명종 때 소수서원으로 사액을 받았다. 이후에 서원은 문종과 결합하여 제사와 학문의 요람으로 거듭났다.

그런데 조선 초기에 일반 백성들은 불교문화를 숭상하는 정신을 버리지 못했다. 조선 초기 서민들의 삶은 불교가 대세였다. 송유배불(崇儒排佛)정책으로 정치적인 탄압과 풍수지리적인 영향으로 사찰은 점차 산지가람으로 형성되었고, 스님들은

천민으로 신분이 추락했다. 불교가 인도 북부에서 발생했지만 힌두교 영향으로 인도도 소극적인 불교가 되었고, 중국도 사회주의 공산화 과정에서 '문화혁명'을 거치며 많이 변질 되었다. 불교의 근본적인 교리나 사찰의 역할이 변형되었다. 일본도 우리나라에서 전래되기는 했지만, 섬나라의 특성상 일본화 되었다. 각자 '문화변용'을 겪었지만, 우리나라는 대승불교(북방불교)의 정통성을 고수하며 선불교에 치중했다. 이런 노력이 세계사에서 인정되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이다.

추가 등재도 중요하지만, 이미 등재된 건물에 대하여도 관리가 더 문제다. 건축사들은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청의 주도하에 관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확한 매뉴얼에 따른 관리가 되는지 묻고 싶다. 10여 년 전 송례문과 낙산사 화재에서 보았듯이 매뉴얼 없는 관리가 얼마나 허망하고 황당한 것인지 경험했다. 이제부터는 도 단위 위주로 행정청과 연계하여 건축사들이 나서자는 얘기가. 물론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화재 실측설계건축사도 있고, 건축사 중에 보수기술자 자격을 가진 자도 있을 것이다. 또 한옥전공으로 학위를 가진 사람도 있다. 이런 인적자원을 잘 활용한다면, 더없이 좋은 점검 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방법은 각 시·도별로 시행하면 될 것이다.

민간단체에서도 "문화재 지킴이"라고 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업역도 넓히고,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본부와 긴밀히 협의하여야겠지만, 더 이상 무분별하게 보수나 증축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문화재만큼은 옛것은 옛것 그대로 있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새로운 것을 붙이는 것은 사족(蛇足)이다. 그러나 짚어야 할 것은 있다. 그렇다고 너무 방치해서도 안 된다. 있는 그대로를 보존해야 하지만 너무 방치하다 보면, 세월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한다. 필자는 전국의 고택·향교·사찰·관아 등을 300여 곳 답사하면서 느낀 것은 새롭게 한다는 명분으로 또 다른 훼손이 되는 것을 보았다. 문화재만큼은 관람객들도 인식을 바꿔 관람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불편함이 있어 관광객이 조금 덜 오면 어떨까? 연 중 관람객 수를 정하거나 하루 관람객 수를 제한하는 등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사찰과 서원이 등재된 것을 자축(自祝)은 하지만, 자축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건축사의 역할을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다. 사용하다가 후손에게 제대로 넘겨줘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그 중심에 건축사가 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제부터라도 일반 문화재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문화재에 대하여 건축사는 물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관심과 보존에 힘써야 할 때다.

〈유튜브에서 '남도문화탐방'을 탐색하면 전라남도 각 지역 대표 문화유적 강의를 시청할 수 있음. 전라남도사업으로 강사는 정종민 필자입니다.〉

※ 유튜브 주소 : <https://youtu.be/G7n6JRBaqUg>

미다스카드 아카데미
가정의 달 이벤트

마음을 전하는 고객감사 프로모션

5년 계약시 할인 및 1Lic당 상품권 20만원 제공



신세계 상품권
200,000

-정가 300만원-
200만원 + 상품권 20만원

3년 계약시 할인 및 1Lic당 상품권 10만원 제공



신세계 상품권
100,000

-정가 300만원-
140만원 + 상품권 10만원

타사카드 가격비교
5년 기준 가격 (아카데미 프로모션가 기준)

200만원	1/5 가격	아카데미
464만원		Z사 카드
1065만원		A사 카드

카드 결제 * 개인카드만 적용,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 * 멀티카드 구매 시 추가 혜택 제공

 * 일부카드의 무이자 할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www.midascad.com 구매문의 1899 - 9260

MIDAS

사랑에서 _ 일흔아홉 번째

다락. 로망과 위법의 경계를 넘나들다...

치솟는 공동주택분양가, 층간소음의 폐해, 자신의 개성을 존중하지 않는 평면 등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은 단독주택을 꿈꾸게 된다. 이러한 건축주들과 함께 단독주택을 계획하다 보면 협의 과정에서 다락을 둘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된다.

다락은 건축법에서 바닥면적 산입 여부와 층고제한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정확히 어떠한 공간인지에 대한 정의가 없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에서 그 용도를 찾아보면 '다락[명사]: 주로 부엌 위에 이층처럼 만들어서 물건을 넣어 두는 곳. 보통 출입구는 방 쪽에 있다.'라고 서술되어있다. 다락은 사람이 거실용도로 기거하는 공간이 아닌 물건을 넣어두는 창고와 같은 곳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요즘은 단독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종 매스컴에서 단독주택을 소개하는 방송프로그램이 많이 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다락에 대한 로망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경사진 지붕에 천창을 내고 그 아래에 누워 하늘의 별을 헤거나 지나가는 구름이나 내리는 눈비를 보고자 하는 욕구가 많은 듯하다.

간혹 집주인이 자신 집의 다락을 소개하면서 한켠에 침대를 놓고 그곳이 딸이나 아들의 침실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거나, 서재나 운동공간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극찬을 하곤 한다. 다락의 높이는 경사지붕의 경우 층고를 평균 1.8M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지붕경사를 잘 계획하면 경사면 상부아래에는 2.1M 이상의 높이를 확보할 수 있어 거실처럼 이용하는 데 무리가 없게 된다. 이렇다 보니 다락은 물건을 보관하는 곳기보다 일상생활을 하는 장소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또한 다락을 통해 외부 옥상으로 나갈 수 있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옥상은 정원이나 바비큐장으로 꾸미면 다락의 쓰임새는 더욱 확대되게 된다.

또한 다락의 유무에 따라 주택거래가격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과거에는 아파트에서 최상층과 최하층은 비인기 층으로 분류되어 거래 시 중간층보다 시세가 낮게 책정되었었다. 하지만 요즘 최상층의 경우 조망 등의 이점으로 오히려 더 높게 거래되고 특히 다락이 있는 최상층의 경우는 부르는 게 값이 되는 상황이다.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아 세금부과에서 제외되고 기준층보다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다락 설치에 드는 공사비를 고려하더라도 다락이 있는 집은 훨씬 좋은 조건으로 거래가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지붕 아래에 다락이 있는 집은 매력적인 공간 활용도 이외에도 재산가치로서도 우위를 차지한다.

하지만 다락은 현행 법령상 거실이 아닌 물건의 수납용도로 이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허가청에서는 난방설비설치 여부와 외부 옥상 방향 창문의 설치 높이 등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다락의 개념은 다른 듯하다. 단순히 창고 역할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공간이기 때문일 것이다.

다락. 분명 사용하기에 따라 주택에서 누릴 수 있는 로망이 존재하는 곳이지만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때론 위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자문위원 _ 강동영 건축사(archikang@naver.com)

건축사 Q&A

▶ 가파른 철근값 상승으로 인한 건설회사들 공사 중단, 지연 속출

2021년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라 세계 각국의 인프라 투자로 철근수요 급증, 중국 정부의 지난해 9월 유엔총회에서 화상 연설을 통해 탄소중립을 천명하며 탄소배출이 심한 철강 생산량 감산에 나섰고 이로 인해 자국산 철강재수출금지, 미국의 경기부양책으로 낮은 주택 대출금리, 백신 공급으로 인한 경기회복, 젊은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건축시장이 확장 성장 중이고, 우리나라 또한 제철업계가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19로 억눌린 소비 생산회복 등으로 원유, 철강, 구리 등 원자재 전반의 가격이 오르고 있는 현실이다.

2020년 말 기준 철근 톤당 가격이 60만 원대 후반이었으나 21년 초 70만 원대로 상승하였고 5월 기준 120~140만 원 가까이 상승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철강업계에 의하면 5월 28일 자 기준 7대 제강사 철근 유통 가격이 톤당 135만 원을 기록하였다고 한다.

철근 이외에도 건설자재의 대란은 공사비 원가의 증가로 원·하도급사의 분쟁, 공기연장, 계약 포기 등의 사례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방의 중소기업은 폐업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또한 주택공급 시기도 늦춰질 것이며 이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증가도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국토부에서는 철근 수급 불안을 대응코자 산자부, 조달청과 함께 TF팀이 참여해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 발주 공사에 대해 공사비 조정, 공기 연장 등 규정을 안내하는 지침을 통보하고 기재부, 행안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빠른 대응책이 나와 건설시장의 안전이 확보되길 기대해 본다.

출처 : 한국건설신문(http://www.conslove.co.kr), 매일경제(https://www.mk.co.kr),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정인재, 한형민, 박진만
창간발행인 신정철, 김강수, 이성엽
역대발행인 심상봉, 안길진, 국원식, 김남중, 윤문곤, 정명철, 박용목, 전병갑, 강현구, 조연준, 이길환
초대편집인 박홍근
편집인 박종호
부편집인 박주현, 임현정, 육광돈
자문위원 서재형, 정명환, 강동영
전담기자 곽승국
논설위원 이순미, 신영은, 박신남, 강필서, 이종순, 백재봉, 정영범, 김미영, 정관성, 양우현, 윤미순, 양창근, 최정미, 김영규, 이원규, 임태형, 정영진, 허만수, 설해순, 오선화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편집및인쇄 레이아웃 T. 070-8277-2589
광고신청 T. 062)521-0025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하단광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 신협 131-009-471898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 1만 원부터
- 후원방식 : 신협 131-009-471898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 정현아 건축사(주)종합건축사사무소 창 500,000원
- 대광판넬 350,000원
- 마이다스아이티 300,000원
- 이본석 이본석 법률사무소 100,000원

건축문화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필/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취득, 교수임용 등)
 원고마감 : 매달 25일
 문의 : 광주건축사회(T. 062-521-0025 / gikira@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pt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서민한옥 소우주

안경호 건축사 / (주)도시 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28, 4층 402호
Tel. 063-714-3211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50길 7 / 대지면적 : 236.1㎡ / 건축면적 : 92.76㎡ / 연면적 : 256.72㎡ / 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주용도 : 단독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 / 구조 : 한식목구조(전통한옥), 지하 철근콘크리트조 / 주요 마감 : 한식기와, 건식벽체 위 회벽마감



택지개발로 조성된 규격화 된 대지는 건축주들이 외부조망과 충분한 실내면적 확보를 위해 부득이 2층 한옥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지의 조건에 순응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한옥 본연의 가치를 실현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많은 설계자와 건축주들의 고민들이 모여 생활상과 시대상을 반영하면서 정체성을 잃지 않는 한옥들이 지어지고 있고, 마을은 차츰 새로운 질서와 조화를 찾아가고 있다. '소우주' 또한 다각적인 고민 끝에 탄생했고, 집의 뿌리는 한옥이되 도시민의 현재와 미래를 소박하게 담은 집이라 생각하여 '서민한옥'으로 부르고자 한다.



전라북도, 총괄·공공건축가제도 추진사항 논의 위해 정기회의 개최

지난 5월 25일 도청 회의실에서... 민관 소통과 역량 강화에 힘쓰기로



전라북도는 지난 5월 25일 전라북도 총괄·공공건축가제도의 추진사항을 전반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진정 전라북도 총괄건축가를 비롯한 공공건축가 20여 명이 참석해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시행 1년

을 되돌아보고 제도개선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우선 심도 있는 전문가 자문이 가능하도록 총괄·공공건축가 적용사업 범위를 기

존 도내 전 시군에서 전라북도 직접 발주사업으로 조정하였다. 이에 공공건축가와 추진사업 간 1:1 연결이 가능해 실질적인 민관 협력체제로 운영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공공건축가와 사업부서와의 '사전간담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사전 정보 공유로 완성도 있는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에서다.

또한, 자문 대상·범위·기준 등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의 전반적 내용을 담은 규정을 마련한다. 현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6월 중으로 운영 규정을 제정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건축가 제도 활성화를 위해 민관 소통과 역량 강화에도 힘쓰기로 했다.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화상회의, 서면회의 등 비대면 회의방식을 탄력적으로 활용해 민관이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또, 격월 주제별 세미나 발표 및 외부전문가 초청 강연 등을 진행하고 하반기 워크숍 계획을 수립해 공공건축가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전라북도 공공건축가는 건축사 13명, 교수 7명(전북지역 18명, 타지역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라북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국비 229억 원 확보

도내 공공건축물 73개소(어린이집 18, 보건소 51, 의료시설 4개소) 대상

전라북도가 정부의 한국판 뉴딜(그린뉴딜)의 일환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국비 229억 원을 확보했다.

지난 5월 27일 전라북도는 국토교통부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공공건축물 73동(전국 841동)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국비 229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327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에는 도내 어린이집 18개소, 보건소 51개소, 의료시설 4개소 등 총 73동이 녹색건축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전라북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도내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과 실내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라북도가 시·군간담회와 사업지 발굴 등 선제적 대응과 사전 조사 및 컨설팅에 적극 참여하며, 지난해 대비 86억 원이 증가된 국비를 확보하였다.

전라북도는 지난 4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주대학교 등 협력 기관과 전라권역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플랫폼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통해 그린리모델링의 사업 전·후 에너지 성능평가, 기술지원 등 공사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군산대학교 해상풍력연구원 국제공모 시상식 열려

전북건축사회가 산학협력으로 대행 진행... 대상에 김지건 씨



전북건축사회(회장 박진만)가 군산대학교와 산학협력으로 대행하여 추진한 '대형 해상풍력터빈 해상실증 모니터링 하우스 건립 국제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의 시상식이 지난 5월 25일 군산대학교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시상식에는 군산대학교 광병선 총장이 직접 참석하여 시상을 진행했으며 대상에는 김지건 씨가 선정되어 2,000만 원의 상금을, 최우수상에 원광대 건축학과 현승철·김세령 씨와 박재영 씨 등 2개 작품이 선정되어 각각 500만 원씩 상금을 부상으로 받았다. 그 외 5개 작품을 우수상으로 선정하여 상장을 수여하였다.

이번 국제공모에 국내외의 많은 작품을 비롯하여 프랑스 포함 5개국에서 총 26개의 작품이 접수, 전문가 심사와 관련 교수단의 심사, 주민 수용성을 고려한 말도 현지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작품을 선정하게 되었으며, 향후 실시설계와 공사추진을 거쳐 말도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형 해상풍력터빈 해상 실증 기술개발 과제는 정부로부터 2018년 과제를 부여 받아 군산대학교와 전라북도, 군산시, 서부발전, 전북TP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군산대학교 해상풍력연구원에서 주관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6월에는 지지구조물을 설치하고 터빈을 설치할 예정에 있으며, 풍·해황 및 발전상황, 향후 발전 방안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대, 국토교통부 '21년도 '한옥설계전문인력양성사업' 교육기관 선정

오는 6월 25일까지 '기초반'과 '심화반' 교육생 모집... 7월부터 교육

전북대학교 한옥기술종합센터(센터장 남해경 교수)는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2021년도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사업 교육기관'에 선정되어 교육생을 모집하게 된다. 이번 교육사업의 선정으로 전북대는 유일하게 이 사업이 시작된 첫해부터 이번까지 교육을 계속한 기관이 되었으며 그동안 3년 연속 최우수 교육기관에 선정되기도 했고 약 300명의 한옥설계전문인력을 배출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건축 전문가인 건축사와 예비건축사를 대상으로 한옥설계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인데 전북대학교는 기초반(6개월)과 심화반(5개월)을 운영하게 된다. 특히 심화반은 작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운영하였는데 이번에도 과정을 개설하게 된다. 전북대학교는 6월 1일(화)부터 6월 25일(금)까지 교육생을 모집하고 7월부터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접수 방법은 전북대학교 홈페이지(<https://www.jbnu.ac.kr/>) 교내공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메일(kshdlek@jbnu.ac.kr)로 접수하면 된다.

교육은 전북대학교 전주캠퍼스의 한옥강의실인 심천학당에서 이론 수업을 진행하고 실습 교육은 우리나라 최고의 시설과 장비를 갖춘 고창캠퍼스에서 진행하게 된다. 수료식은 12월에 실시하는데 교육생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솜씨를 종합하여



졸업작품전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한옥과 관련된 이론교육, 특강, 한옥실습교육, 한옥마을 및 건축 답사, 한옥시공실습 등을 통하여 한옥과 관련된 다양하고 전문화된 교과과정으로 운영한다. 교수진으로는 전북대학교 교수진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한옥 관련 유명 교수진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인간문화제 74호인 최기영 대목장을 석좌교수로 임명하여 특화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전 교육과정에서 전북대학교는 시공실습 결과물인 정자건축을 교육이 끝난 뒤 전북대학교 본부 정원과 박물관, 국립무형유산원, 고창아산초등학교 등 공공기관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기부하여 국민들의 세금을 최대한 절약하고 활용하면서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좋은 예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작년에는 알제리와 베트남에 한옥을 수출하기도 했으며 올해는 미국으로 수출할 예정이다.

교육생들이 교육과정 중에 봉사활동을 실시하는데 전에는 전주시의 해피하우스 사업에 참여하여 낡은 담장 페인트칠하기 사업을 도와주기도 하였고 고창군의 농촌독거노인 및 다문화가정 헌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도 참여하여 사회의 고급인력이 전문분야에서 봉사활동을 수행한다고 하여 주위로부터 칭송을 받기도 하였다.

그동안 전북대학교는 우리나라 최고의 한옥교육기관으로 전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한옥건축 체험캠프'를 운영하는 한편 '부모와 함께하는 어린이 한옥캠프', '외국인 한옥캠프', '대학생 한옥캠프' 등을 운영하고 미국과 일본, 그리스, 불가리아 등에서 한옥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다.

(문의 : 한옥기술종합센터 Tel. 063-219-5221)

전북건축사회 설계수탁신고 프로그램 활용 안내

- 프로그램 인터넷 주소 및 이용방법 : <http://jbat.thesome.com>

① 인터넷 주소창에 http://jbat.thesome.com 입력 또는 전북건축사회 홈페이지 하단 배너창의 "설계수탁신고 프로그램" 클릭
② 전북건축사회 설계수탁프로그램 로그인
③ 메뉴 중 "수탁신고" 클릭 후 건축설계용역 내용 입력
④ 동일대지의 중복의뢰건 여부 확인창 확인(게시완료)

- 프로그램 관련 참고사항
 1. 수탁사항을 게시하고 동일 대지에 수탁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중복수탁 여부 확인 가능
 2. 본인이 신고한 수탁사항에 대하여 중복수탁 된 경우 외에는 타 회원은 알 수 없음
 3. 신고된 수탁사항은 등록된 일자과 시간이 표시됨
 4. 수탁신고 후 다른 건축사의 수탁신고 여부는 "수탁목록" 메뉴에서 확인 가능
 5. 초기 아이디와 비번은 "건축사 면허번호"로 가입되어 있음(비번 수정요망)
(단, 2019년 1월 이후 협회 가입 회원은 회원가입 요망)

전북 회원동정

- 입회
 - 형덕용 건축사 / 무주아키브 건축사사무소 / 전북 무주군 무주읍 단천로 94, 2층
- 재가입
 - 정희진 건축사 / 힘찬 건축사사무소 / 전북 익산시 인북로 221
- 변경(상호)
 - 송택신 건축사 / (주)송택신 건축사사무소
- 결혼
 - 송택신 건축사 / (주)송택신 건축사사무소 / 차남 결혼 - 06월 05일(토)

세현담

김대영 건축사 / 인우 건축사사무소
 광주 광산구 장신로 136, 본타워 4층
 Tel. 062-945-5442



대지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25-64번지 / 대지면적 : 297.50㎡ / 건축면적 : 119.52㎡ / 연면적 : 170.38㎡ / 건폐율 : 40.17%
 용적율 : 57.27% / 규모 : 지상 2층 / 주용도 : 단독주택 / 구조 : 목구조



광주건축사회, 광주지체장애인협회에 300만 원 기부

지난 5월 25일 광주지체장애인협회에서... 양 기관 발전 및 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도



사진 좌측 : 박종필 회장 / 우측 : 정인채 회장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회장 정인채)는 25일 광주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진행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지체장애인들의 편의시설 확대에 사용될 300만 원을 기부했다.

이 자리에는 광주건축사회 정인채 회장을 비롯한 이영문, 강형선 부회장과 광주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박종필 회장 및 임직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기부금 전달식에 앞서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도 진행했는데, 이번 체결을 통해 장애인 등 편의법과 교통약자법에 대한 교육실시와 이해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건축물 설계 및 시공검증업무에 있어서의 상호협력과 양 기관 우호 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정인채 회장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의 상호발전과 우의를 증진하고, 상호 협력을 통하여 광주의 건축문화발전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박종필 회장은 "실질적인 측면에서 업무협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원해 주신 기부금은 우리 장애인협회 및 회원 발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도 광주건축사회장배 골프대회 시상식 개최

지난 6월 1일 전남 화순 식당에서... 대회 우승은 길 건축 김삼현 건축사가



사진 좌측 : 정인채 광주건축사회 회장 / 중앙 : 김삼현 건축사 / 우측 : 한명석 골프동호회 회장

골프대회 비회원 시상식

지난 5월 4일 전남 무안 CC에서 개최된 2021년 광주건축사회장배 골프대회 시상식이 코로나19 관계로 현장에서 개최되지 못하고 6월 1일 전남 화순 한 식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광주건축사회 정인채 회장과 안길전 전임회장, 골프동호회 한명석 회장 및 골프동호회 회원 40여 명이 참석했다.

시상식은 노력상을 시작으로 다버디상, 니어리스트, 롱기스트, 준우승, 메달리스트, 우승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번 대회 메달리스트는 해송 종합건축사사무소 강기석 건축사가, 우승은 길 건축사사무소 김삼현 건축사가 차지했다.



준불연가등급

DK본 EPS 단열재

외단열용(2' X 4')
 건축용(3' X 6')
 판넬용(나등급)

www.dkboard.kr

DK보드 건축용은 최적의 무기난연제인 팽창흑연을 비드내에 함침시켜 난연성능이 향상된 소재에 자체개발한 특수 고난연 물질을 도포 마감한 고난연 친환경 준불연 가등급 단열재입니다.

- 준불연재료 공인시험기관 인증
- 열전도율 : 0.032 W/m·k
- 친환경 수성

DK | 주대 광 판넬
 | 주디케이보드



세현담은 세 아이들의 이름에 공통으로 현자가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붙은 이름이었다. 부부는 아이들에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마당이 있는 집을 선물하기를 원했다. 건축주가 원하는 집에 대한 요구사항은 몇 가지 안되었지만 명확했다. 지붕이 있는 주차 공간, 주방과 외부로 연결하는 공간, 아이들을 위한 다락과 아이 셋이 물놀이를 할 수 있을 만큼 넓은 욕실 공간 등을 요구하였다.

주차 공간이 집에서 제일 낮으면서 외부와 연결되는 공간이 되었다. 주차를 하고 현관으로 들어서면 계단 몇 개를 올라 거실로 이어진다. 거실과 주방은 병렬로 배치하였으며 주방과 마당 사이에 실내 공간이자 실외 공간인 썬룸을 배치하였다. 1층에서 또 다시 반 층을 올라가면 부부를 위한 공간이 나온다. 안방에서 또 다시 반 층을 올라가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나온다. 아이들의 공간인 2층에서 반 층을 내려가면 엄마 아빠가 있는 안방이 나오고 반 층을 올라가면 아이들의 놀이공간인 다락이 나온다. 이 집의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한 다락은 멀티 공간으로 활용 계획하여, 현재는 아이들의 놀이공간이지만 아이들이 크면 부부의 서재가 될 예정으로 가장 높은 층을 가지고 있어서 집 앞의 공원이 한눈에 들어와서 건축주 부부가 욕심내고 있는 공간이다.

이 자리에서 정인채 회장은 “수상하신 회원 여러분들 모두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히며 “회원 간 단합으로 광주건축사회 발전도 함께 이뤄내자”고 말했다. 한편, 골프동호회 비회원에게 대한 시상식은 이에 앞선 5월 28일 광주건축사회 회장실에서 개최됐다.

광주건축사회, 광주시 함인선 총괄건축가 초청 강연회 개최
 지난 5월 25일 회관 대회의실에서... ‘왜 건축사들이 도시를 알아야 하는가?’ 주제로



광주건축사회는 지난 5월 25일 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광주광역시 함인선 총괄건축가 초청강연회를 개최했다. ‘왜 건축사들이 도시를 알아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강연회에 광주시 건축·도시정책에 관심 있는 건축사회원 40여 명이 참석했다. 함인선 총괄건축가는 이날 강연회에서 광주 도시건축선언 소개와 이행 매뉴얼, 이와 관련한 도시건축 프로젝트 사례에 대해 설명했으며, 주제 발표 후 건축사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광주 도시건축선언 이행에 건축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해당 강연에 대한 영상 및 관련 자료는 광주건축사회 자료실 웹하드 (<http://www.webhard.co.kr/>) 내리기전용에 게시되어 있다.

광주건축사회, 위원회 위원장 간담회 개최하고 위원회 활성화 방안 협의
 지난 5월 27일 회관 4층 소회의실에서... 13개 위원회 위원장 참여



광주건축사회는 지난 5월 27일 회관 4층 소회의실에서 회원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고 위원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자 위원회 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인채 회장을 비롯하여 이영문, 강형선 부회장, 이해란 신협 부이사장, 13개 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인채 회장은 “건축사회 운영에 있어 회원 한분 한분의 참여가 무엇

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며 “각 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는 소속 위원회의 운영을 주관 하면서,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 주시고 더불어 회원 한 분, 한 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 실행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건축사회는 5개 구협의회와 16개 위원회로 조직되어 있다.

전남대학교, 한옥설계전문인력 양성교육 교육생 모집
 건축사, 기술사 등 대상... 오는 6월 21일까지 접수 진행



전남대학교에서 건축사 및 기술사 면허 소지자, 건축 및 문화재 관련 전공자를 대상으로 ‘2021 한옥설계전문인력 양성교육(한옥설계 전문과정)의 교육생을 오는 6월 21일까지 모집한다.

해당 교육은 40명(기초 28명/심화 12명)을 선발하여 진행하는데 기초반은 7월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총 6개월 과정으로 진행하고, 심화반은 9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4개월 과정, 각각 주 1회 교육으로, 전남대학교 공대 2호관 건축학부 대강의실에서 진행된다.

교육수료자는 수료증이 수여되며 우수교육생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상과 기관장상이 수여되고, 건축사실무교육 자기계발 5시간이 인정된다.

교육 신청은 전남대학교 홈페이지(<https://www.jnu.ac.kr/>) 공지사항 공고문에서 지원서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등 소정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공고문에 기재된 이메일 또는 직접 방문,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사항은 전남대학교 건축역사연구소(Tel. 062-530-0879)로 문의바란다.

광주 회원동정

- **입회**
- 원형성 건축사 / 원 건축사사무소(주) / 광주 남구 봉선1로 82 2층
- **폐업**
- 이주현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예담
- **변경(소재지)**
- 최성규 건축사 / (주)수 건축사사무소 / 광주 남구 효우로 87, 501호
- **변경(상호&소재지)**
- 신영기 건축사 / (유)신.연희 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상무평화로 89, 1109호
- **결혼**
- 송명근 건축사 / 금호 건축사사무소 / 장남 결혼 - 05월 29일(토)
- 곽영경 건축사 / (주)간토 건축사사무소 / 장남 결혼 - 06월 05일(토)

전남건축사회, 회원 복지 증진 위한 리조트 이용 협약 체결

지난 5월 21일 금호리조트와 업무협약... 전국 금호리조트 할인 혜택



사진 좌측 : 한형민 회장

전남건축사회(회장 한형민)는 회원사와 임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리조트 이용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5월 21일 화순 금호리조트에서 한형민 회장을 비롯해 금호리조트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금호리조트와 업무협약 체결식이 진행됐다.

협약내용에 따르면 전남건축사회 회원사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올

해 12월 31일까지 전국 금호리조트(통영마리나리조트, 금호제주리조트, 금호화순리조트) 객실과 아쿠아시설 이용 시 할인금액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리조트 이용 시 혜택을 받고자 하는 회원사는 온라인 예약주소(<https://www.kumhoresort.co.kr/reservation/Tcompany/company/jnira.html>)에 접속하여 예약하면 된다.

한형민 회장은 "회원사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흔쾌히 업무협약을 해준 금호리조트에 감사함을 전한다"고 밝히며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양 기관 공동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건축사회, 교육위원회의 개최하고 올해 건축사 실무교육 일정 변경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상·하반기 실시하기로 한 교육을 하반기에 실시



전남건축사회는 지난 5월 7일 장흥 목재산업지원센터 1층 회의실에서 교육위원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도 건축사 실무교육 실시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당초 상반기(6월) 하반기(10월) 2회 실시할 예정이었던 실무교육을 코로나19로 인해 하반기 1회(여수, 나주)로 실시하기로 했으며, 실시과목도 당초 윤리교육 1과목, 전문교육 4과목을 실시하기로 했으나 올해는 윤리교육 1과목, 전문교육 2과목만 실시하고, 전문교육 2과목은 2022년으로 연기했다.

전남건축사회 관계자는 "변경된 교육 일정에 따라 많은 회원들께서 해당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변경된 실무교육 일정이다.

교육 시기	교육 종류	교육과정명	강사명	장소
하반기 (10월)	윤리 교육	마음 챙김과 감사	김경화 (광주여자대학교 교직과정 부교수)	동부권 (여수)
	전문 교육	BIPV 시스템의 이해	이응직 (세명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서부권 (나주)
	전문 교육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교육	김의중 (건축사사무소 서보건축)	
2022년으로 연기	전문 교육	그린리모델링의 개념과 설계기법	박병열 (건축사사무소 시인공간 / 국토부그린리모델링 전남총괄기획가)	
	전문 교육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박종호 (유민 건축사사무소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강사)	

전라남도, 2021년도 업무대행건축사 공개모집

오는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등록신청 기간... 전라남도 건축개발과로 신청

전라남도는 건축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2021년도 업무대행건축사를 공개모집 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마감일 기준(2021. 6. 16.)까지 전라남도에서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한 건축사이며, 신청기간은 오는 6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이다. 제출방법은 업무대행건축사 등록신청서와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을 전라남도청 건축개발과(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로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업무정지 또는 휴업기간 중에 있는 건축사는 명부 작성 시 제외되고 모집 결과는 도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건축개발과 건축관리팀(Tel. 061-286-7732)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지역경제 활력 주도

뉴딜사업 3개 지구, 새마을사업 6개 지구, 2025년까지 925억여 원 투입



여수시가 생활 SOC가 열악해 인구 유출의 원인이 되고 있는 낙후되고 쇠퇴한 도심 취약 지구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인 광림지구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국토교통부 공모를 통해 뉴딜

전남도립대학교 학사 행정지원동

김병수 건축사 / 공간 건축사사무소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23
Tel. 061-537-4777



대지위치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향교리 53번지-외 37필지 / 대지면적 : 180,126.00㎡ / 건축면적 : 16,716.353㎡
연면적 : 39,959.015㎡ / 규모 : 지상 2층 / 주용도 : 교육연구시설 / 구조 : 철근콘크리트 / 주요마감 : 로이복층유리, 노출콘크리트, 청고벽돌

사업 3개 지구, 새들마을사업 6개 지구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낙후된 도시재생사업에 2025년까지 925억여 원이 투입된다.

도시재생사업은 낙후되고 쇠퇴한 도심의 기반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주민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여수시는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전담조직을 구성해 도시재생 뉴딜공모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과 상호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1월에는 도시재생 추진부서를 1개 팀에서 3개 팀으로 조직 개편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

2020년 국동지구에 이어 금년 3월 도성지구가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순천시, '2021년 허가민원 업무편람' 제작 배부

시민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 위해...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



순천시는 지난 5월 초 시민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건축·개발·환경·위생·지적 등 분야별 2021년 허가민원 업무편람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가민원 업무편람은 분야별 관련공무원이 TF팀을 운영하여 허가절차와 주요 체크포인트, 관계법령 등을 연구·검토하여 허가과정을 알기 쉽게 수록하였다.

시는 민원업무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 향상과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접근성 향상을 위해 순천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에 비치하였으며, 지역 건축사회 및 토목설계사무소에도 배부하여 허가 절차를 정확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2021년 허가민원 업무편람은 순천시 홈페이지 전자민원-민원편람에서 내려 받아 확인할 수 있다.

순천시,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국비 30억 원 확보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총 49억 원 사업비 확보... 총 12곳 진행

순천시 한국형 뉴딜(그린뉴딜)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응모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6곳에 국비 30억 원을 확보했다.

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총 4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2020년 월등·회덕·비촌 보건지소 등 6곳의 리모델링에 이어 2021년에 선정된 외서보건지소와 승주어린이집 등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순천시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고 보조율이 70%에 달하는 이번 공모사업을 위해 사업 시행 초기부터 적극 대응해 왔다.

순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꾸준히 예산을 투자해 온 순천시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생태도시로서의 명성과 내실을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지역 개별공시지가 10.43% 상승

나주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으로 15.57% 최고... 진도 8.4% 최저

전남지역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0.43%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9.95%)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라남도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523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가 시군별로 나주 15.57%, 장성 13.4%, 담양 12.22% 순으로 많이 올랐으며, 진도가 8.4%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주요 상승 요인은 나주의 경우 영산동 등 구도심 도시재생사업 영향을 받아 가장 높게 상승했다. 장성은 진원면 등 첨단3지구 개발 본격 착수 등으로, 담양은 담빛문화지구 조성으로 인접 실거래가 상승과 광주 연접지역 가격 균형 영향으로 분석됐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지난해부터 최고 지가를 이어온 여수 학동 상가다. 상업지역인 이곳의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3.4% 오른 1㎡당 438만 5천 원으로 공시됐다. 최저 지가는 장흥 유치면 임야로 1㎡당 176원이다.

자세한 개별공시지가는 전남도와 시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정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은 토지 소재지 시군에 방문하거나 누리집 등을 통해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8일까지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 발표한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에 따라 개별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가가 9.67% 올라 모든 시군이 고루 상승했다. 이에 개별공시지가 기준 전남도 총자산은 143조 원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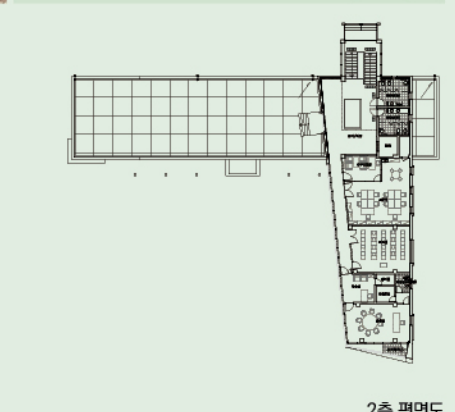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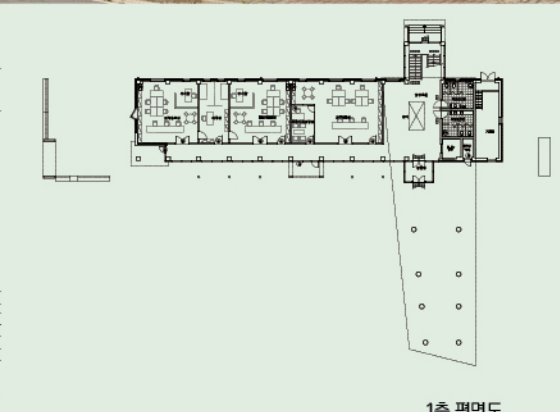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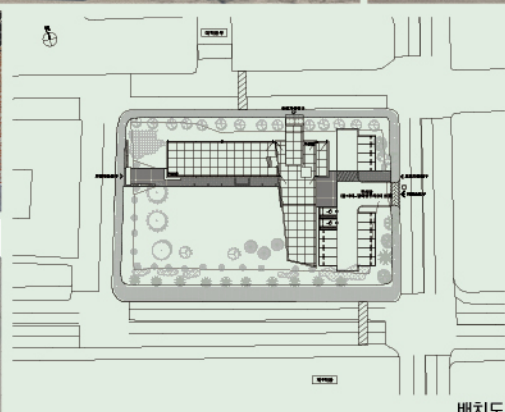
개별공시지가가 국세 및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과 총 60여 종의 행정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전남 회원동정

- **변경(소재지)**
- 이정심 건축사 / 가인 건축사사무소 / 전남 목포시 삼학로 334번길 23-1
- **변경(상호&소재지)**
- 나상민 건축사 / 신영 건축사사무소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64, 1층



1층의 매스는 캠퍼스 건물들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따라 배치했다. 전면의 너른 조경 공간을 실내로 끌어들이고 동시에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단순한 연도형 평면으로 계획했다. 1층에 비하여 입체적으로 구성된 2층 매스에는 개방적 필로티 공간과 방향성을 주었다. 이는 이용자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리라 기대해 본다.



배치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장흥군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건립(신축) 사업 건축 설계공모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 대처를 위해 장흥군농업기술센터 청사 및 과학영농연구실을 현대화하고 주차장, 조경 등으로 방문객들의 편의성을 높여 고소득 창출 지도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일반설계공모를 통하여 상징성, 실효성, 공간적 우수성 등 창의적 아이디어가 담긴 설계안을 선정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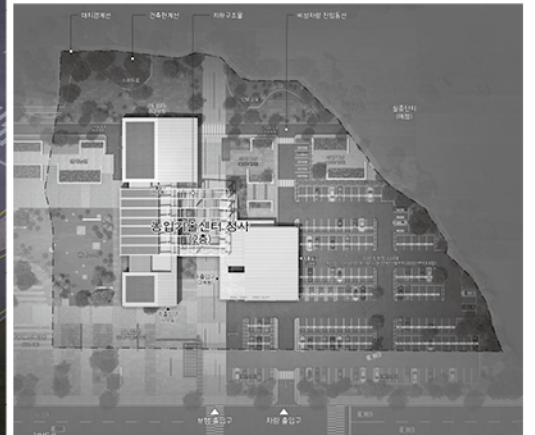
심사위원 : 심상봉(㈜건축사사무소 AD그룹), 이종식(송원대학교), 오덕영(건축사사무소 이오), 정우정(㈜정구조엔지니어링), 조세진(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지원단)

- 대지위치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776번지 일원
- 대지면적 : 16,242㎡
- 건축면적 : 1,664.75㎡
- 연면적 : 2,717.09㎡
- 규 모 : 지하 1층, 지상 2층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당선작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창
 우수작 : (주)금양이엔씨 건축사사무소
 + (주)건축사사무소 휴먼앤스페이스
 가 작 : 동네 건축사사무소
 * 자료 미제출

당선작

정현아 건축사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창



우수작 김미영 건축사 / (주)금양이엔씨 건축사사무소 + 은철영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휴먼앤스페이스



대한건축사협회, 2021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430명 발표
합격예정자에 대한 서류심사를 거친 후 7월 2일 최종합격자 발표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가 지난 5월 14일 2021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를 발표했다.

이번 시험은 전회('20년 2회) 7,009명보다 418명이 줄어든 총 6,591명이 응시한 가운데 합격예정자인 3과목 합격자는 6.5%(430명)로 전회 합격률 14.2%(992명)보다 7.7%p(562명)가 감소하였다.

과목별 합격자는 1교시 대지계획 9.5%(503명, '20년 2회 24.2% 1,476명), 2교시 건축설계 8.9%(402명, '20년 2회 12.2% 523명), 3교시 건축설계2는 8.2%(392명, '20년 2회 8.9% 426명)이다.

합격예정자의 연령층은 30대가 183명(42.6%), 40대가 177명(41.2%)으로 합격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여성 합격자는 전체 합격예정자의 29.5%(127명, '20년 2회 29.7%, 295명)로 전회와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합격예정자는 관련 서류를 지난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대한건축사협회에 제출했으며, 최종합격자는 합격예정자에 대한 서류심사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서 오는 7월 2일 발표한다.

국토부, '21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 건축물 841건 선정
총 사업비 2,948억 원 규모, 광주 17건, 전남 83건, 전북 73건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건수	81	27	3	18	17	7	4	6	103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공공·중앙
건수	113	33	69	73	83	95	58	20	31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1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 건축물 841건(총 사업비 2,948억 원, 국비 2,130억 원 규모)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특히, 각 광역지자체별 대표 사업지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 사업'으로 선정하여, 공사비 추가 지급이나 기술자문 등을 통해 지자체가 우수한 성과를 내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어린이, 노약자, 환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을 그린리모델링하여 에너지성능을 향상시키고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2050 탄소중립과 같이 범국가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국민 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판뉴딜 10대 과제로 선정되었으며, 지난해(834건)부터 추진하고 있다.

올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LH 그린리모델링센터는 지난 2월 사업을 희망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해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업공모(3.31)를 거쳐 사업요건 충족여부 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841건의 사업대상을 선정하였다.

'21년도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841건은 용도별로 어린이집 399건(47%), 보건소 384건(46%), 의료시설 58건(7%)이고, 권역별로는 수도권 지역 202건(24%), 비수도권 639건(76%)으로 나타났다.

총 사업비는 2,948억 원 규모이며, 용도별로는 어린이집 1,168억 원(40%), 보건소 1,113억 원(38%), 의료시설 668억 원(23%) 규모이고, 권역별로는 수도권 753억 원(26%), 비수도권 2,195억 원(74%) 규모이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그린 리모델링센터 누리집'(www.greenremodeling.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1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오는 6월 22일까지 접수

공공건축·혁신행정·국민참여 3개 부문... 국무총리표창 등 11점 시상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1일 우수한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거나 개선하는 데 노력한 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2021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이하 '공공건축상')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은 공공건축·혁신행정·국민참여 3개 부문이며, 공공건축조성에 공로가 있는 발주기관에 총 11점의 표창장 등이 수여된다.

지난 2007년 시작되어 올해로 15회를 맞이하는 공공건축상은 발주자의 창조적



노력·성과를 발굴할 뿐 아니라, 공공건축물이 지역주민과 교감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모는 크게 공공건축, 혁신행정, 국민참여 등 세 부문으로 진행하고, 공통적으로 학계·업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부문별 심사기준 및 심사위원 명단 등 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모지침을 통해 공개한다.

'공공건축' 부문의 상은 품격 높은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 보급에 헌신적인 노력과 선도적 역할로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한 발주기관의 부서에 국무총리표창 1점, 국토교통부장관표창 3점 등 9점 내외로 수여된다.

'혁신행정' 부문의 상은 공공건축물의 수준 향상을 위해 업무 혁신을 이룬 사례나 현재 추진 중인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기관의 부서에 국토교통부장관상 2점이 수여된다.

'국민참여' 부문은 '내가 생각하는 좋은 공공건축' 또는 '내가 경험한 특별한 공공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수필, 동영상, 카드뉴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별도 시상식 없이 1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최우수작 및 우수작으로 선정된 5인에게 차등 지급하고, 추첨을 통해 참가자 중 10명에게 1만 원 상당의 기프트콘을 발송할 예정이다.

오는 6월 22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건축과 혁신행정 부문은 공문이나 담당자 메일로 접수하고, 국민참여 부문은 2021 공공건축상 누리집(www.molit.go.kr/2021publicbuilding)에서 접수하면 된다.

심사결과는 7월 말부터 해당 누리집에서 게재하고, 수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9월로 예정되어 있는 '건축의날' 행사에서 진행된다.

'청년건축 인재 육성' 위해 해외 건축 관련 활동 국비 지원한다

국토교통진흥원, 오는 6월 16일부터 25일까지 모집... 최대 2천만 원 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국토교통진흥원)은 오는 6월 16일부터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해외 건축 활동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청년 건축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은 2019년부터 해외연수 비용을 지원해왔으며 2020년부터 시행된 해외 건축 활동 지원 1차 모집에서는 총 9팀(17명)이 선발돼 8팀(16명)이 수행한 총 13건의 해외 건축 관련 활동을 지원했다.

2020년 해외 건축 활동 지원 2차 모집에서 선발된 22팀(45명)은 현재 활동 중에 있으며 해외 건축 활동 지원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2021년 모집에서는 선정 규모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2021년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해외 건축 활동 지원 신청·접수 기간은 오는 6월 16일부터 6월 25일까지이며 참가 자격은 국제적인 건축설계 공모, 행사 등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팀으로 청년건축인 요건을 갖춘 사람이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원 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장 4개월까지이며 활동 유형에 따라 팀당 최대 2천만 원 이내에서 청년건축인에게 활동비를 지원한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해외 건축 활동 지원은 지난 5월 21일에 모집 공고를 시작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인재육성사업 홈페이지(http://www.archi-training.kr/)를 통해 신청 방법 등 확인이 가능하다.

이본석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 본 석**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82, 2층
T . 062-228-0787~8
F . 062-228-0789
M. 010-2736-0787
E . lbs0787@daum.net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 군법무관 15기 임용
- (현)광주건축사회 법률 자문변호사
- (현)광주광역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 (현)전남지방경찰청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 (현)부동산개발협회 광주지회 자문변호사
- (전)영무토건 자문변호사
- (전)광주광역시청 법률지원 자문위원

책 소개 _ 이 들 학생기자 / 조선대학교 건축학과(5년제)

건축, 음악처럼 듣고 미술처럼 보다

서현 저 / 효형출판 / 1998. 07. 25.

누군가 말했다. “같은 책을 여러 번 읽으면, 그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내용과 감정들이 느껴질 것이다”라고. 나는 이와 같은 경험을 이 책을 통해 체험하였다.



이 책은 1998년 7월 25일 초판본이 발행된 뒤 3번의 재개정판이 나왔다. 매 개정판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건축물이 추가되었고 또, 빠지기도 하였다. 초판본이 나온 뒤로 도시가 계속해서 바뀌었기 때문이라 저자는 말하고 있다.

처음 이 책을 접한 건 고등학생 시절이었다.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고자 무작정 읽어다녔다. 자기소개서에 한 줄, 생활기록부에 한 줄을 더 적기 위해 읽었다. 그 당시를 회상해보면, 아마 책의 내용을 이해하지는 못한 것 같다. (물론, 지금도 완벽하게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을 통해 미래에 희망을 품게 되었고, 건축학과로 진학하게 되었다.

다시 이 책을 만난 건, 의무경찰로 군 복무를 하던 2018년이였다. “전역하기 전에 독서라도 하고 나가자”라는 심정으로 찾은 부대 내 도서관에서 운명처럼 재회한 것이다. 다시 읽어보니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다. (물론, 전부 다 이해한 것은 아니다.) 입대 전 대학에서 배웠던 부분들이 떠올랐고, 휴가 때에는 책에서 소개하는 건축물들을 찾아 건축 답사를 다녀보기도 하였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 책을 다시 만난 건 5학년에 진학하기 전 겨울방학이었다. 졸업작품 주제선정과 졸업 후의 진로를 고민하던 중 다시 만나게 된 것이다. 이번에는 빌려서 읽지 않고 서점에서 구매해 밀줄까지 그어가며 읽어보았다. 다시 한번 눈이 열렸고 대학에서 배운 것들과 건축 답사를 통해 얻은 깨달음들이 책 속에도 담겨있었다. “3학년 때 설계한 건축물에 이 개념을 넣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거는 저번 공모전에 내가 활용한 개념과 똑같네!” 등 아쉬움과 반가움이 공존하였다.

고등학생 때 한번, 군대에서 한번, 그리고 졸업을 앞둔 5학년이 되어서 한번. 이 책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이며, 앞으로도 많은 것을 알려줄 것이라 확신한다.

이 글을 읽는 독자분들의 주변에서도 필자와 같은 고민을 하는 이가 있다면 이 책을 선물해보는 것은 어떨까? 모든 건축을 배우는 이들에게 이 책을 강력 추천한다.

세상사는 느낌 _ 설혜순 건축사 / 미건 건축사사무소(전남 목포)

일상의 여유

요즘 주택보단 편하고 치안도 안정적이며 부가시설의 편리함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갖추고 있는 실속 있는 주택으로 아파트가 자리한 지 오래이다. 나도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지만 어렸을 때 주택에 살았던 추억이 좋았던 터라 마침 아파트의 생활에 실증을 느끼던 차에, ‘결혼하면 신혼집으로 도시와 가까운 한적하고 조그마한 시골로 전원주택을 지어 살아야지’ 하며 생각했고 호기롭게 이사를 했다. 처음엔 무척 설레고 텃밭도 꾸미며 잔디가 있는 마당에서의 삶이 평화롭기까지 할 정도로 만족하며 살고 있었는데, 이사 후 얼마 안 있어 불편함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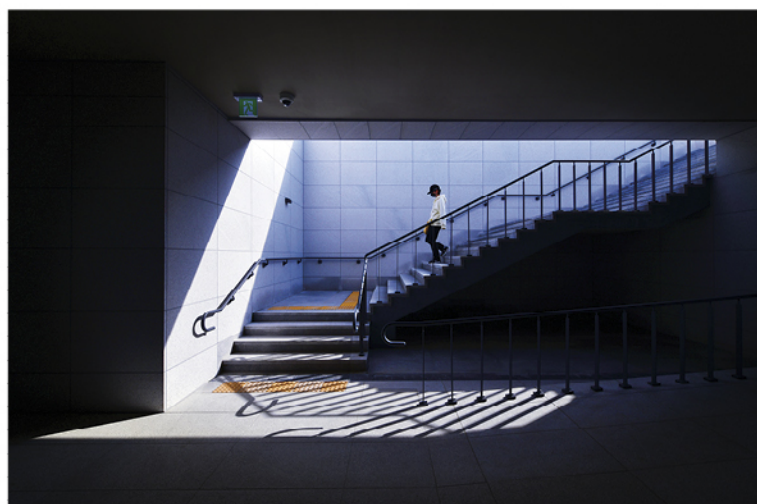
물론 요즘 인터넷 쇼핑이 활성화를 이루며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구입할 수 있지만 간혹 급하게 필요한 물건이나 생필품을 구하려고 하면 읍으로 차를 타고 가야 했으며, 막상 가보면 없는 것도 많았다. 또는 농번기철에는 벼 모판에 씨뿌리기, 가을이면 고추를 말리느라 정작 집 앞에 주차하기 어려워 멀리 차를 세워놓고 걸어와야만 했다.

처음 텃밭을 가꿀 때 생각은 씨뿌리고 물주면 알아서 척척 자라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줄 알았던 채소와 야채가 민달팽이, 진딧물 등 생전 처음 본 벌레들로 인해 만지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으며 농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느끼며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처럼 공부도 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앞마당에 심은 잔디의 잡초는 비가 오는 다음날이면 잔디보다 잡초가 더 자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쑥쑥 자라는 통에 주말과 여름 내내 잡초 뽑기, 잔디를 깎느라 휴일을 반납할 때도 많았다.

그럼에도 마당에 봄이면 수선화, 사과꽃 여름에는 수국, 백합 가을에는 은목서로 인해 마당과 집 안에는 꽃향기로 가득했으며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제비집, 청개구리, 반딧불이도 나를 기쁘게 했다. 그리고 텃밭에는 상추며 고추, 배추 등 4계절 내내 우리 집 밥상을 풍성하게 해주었으며, 집을 지날 때 주위 어르신들을 만나면 안부를 물어봐 주었으며 어르신들이 직접 수확한 많은 먹거리들을 가져다주신다. 나도 과일이나 음식 등 챙겨서 드리곤 하는데 오히려 가족보다 더 많이 만나는 동네 사람들, 옛말에 이웃사촌이란 말이 전원주택에 살면서 새롭게 느껴지는 단어 중에 하나이다.

요즘 내가 ‘아파트에 살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현관 밖을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과 데크에 앉아 처마 끝에 앉아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들으며 차를 마시지 못했겠지...

한 장의 사진



그녀가 계단을 연주할 때

이동희 교수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순천부 읍성 남문터 광장 / 2021년 3월 28일 촬영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 : 광주광역시 제57호

안전진단전문기관

바오건설기술단(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입니다.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은 정기점검과 안전진단이 필수입니다!

대표자 : 정태호/건축사
대표자 : 염환석/구조기술사

▶ 주요업무 :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건축물보수보강/구조계산

▶ 주요분야 : 건축/교량/터널/수리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2로 53, 30동 208호

대표전화 : 정태호 010-3602-3378